

인문학연구소 제168회 집담회

재일조선인작가 김석범의 문학세계와 세계문학

조수일(일본학과)

2025.09.16(화) 16:30-
대학본부 4층 세미나실 2416호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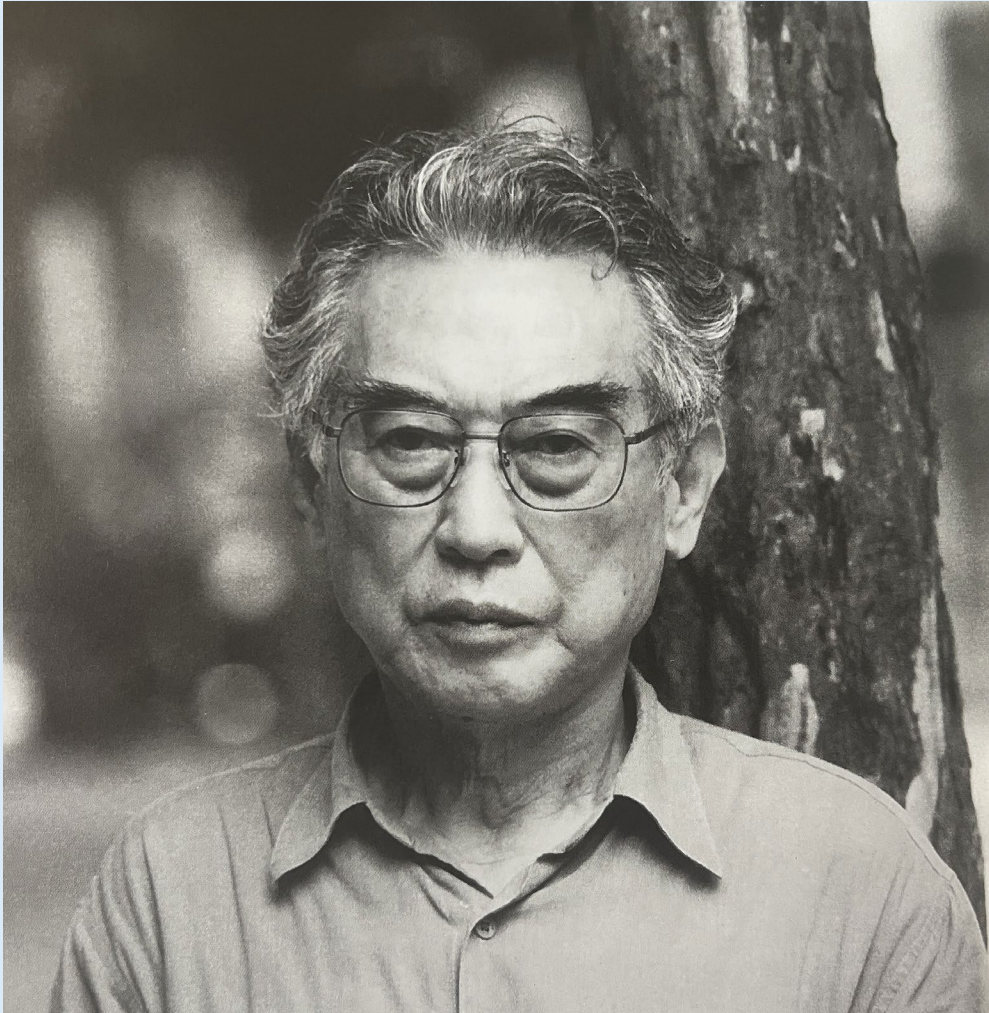
1. 『화산도』와 김석범 문학 연구

2. 김석범 문학을 읽는 범주

3. 김석범 문학은 세계문학인가?

4. 김석범 문학 연구의 과제

1. 『화산도』와 김석범 문학 연구



- 필명: 김석범 [金石範]
- 본명: 신양근 [慎洋根]
- 통명: 김석범 [金錫範]
- 1925년 10월 2일(음력 8월 15일), 오사카 출생
- 1939년, 제주도에서 수개월 생활. 한글 습득.
- 1945년 3월, 징병검사를 위해 오사카에서 서울로.
- 1945년 6월, 오사카로 돌아감.
- 1945년 8월 15일, 도쿄에서 해방을 맞이한다.
- 1945년 11월, 신생조국건설에 참가하기 위해 서울로.
- 1946년, 발진티푸스에 걸려 입원, 여름에 다시 일본으로.
- 1951년, 대마도에서 ‘유방이 없는 여자’ 와 만남.
- 1988년, 42년 만의 한국행

1. 『화산도』와 김석범 문학 연구

김환기 · 김학동 옮김, 보고서,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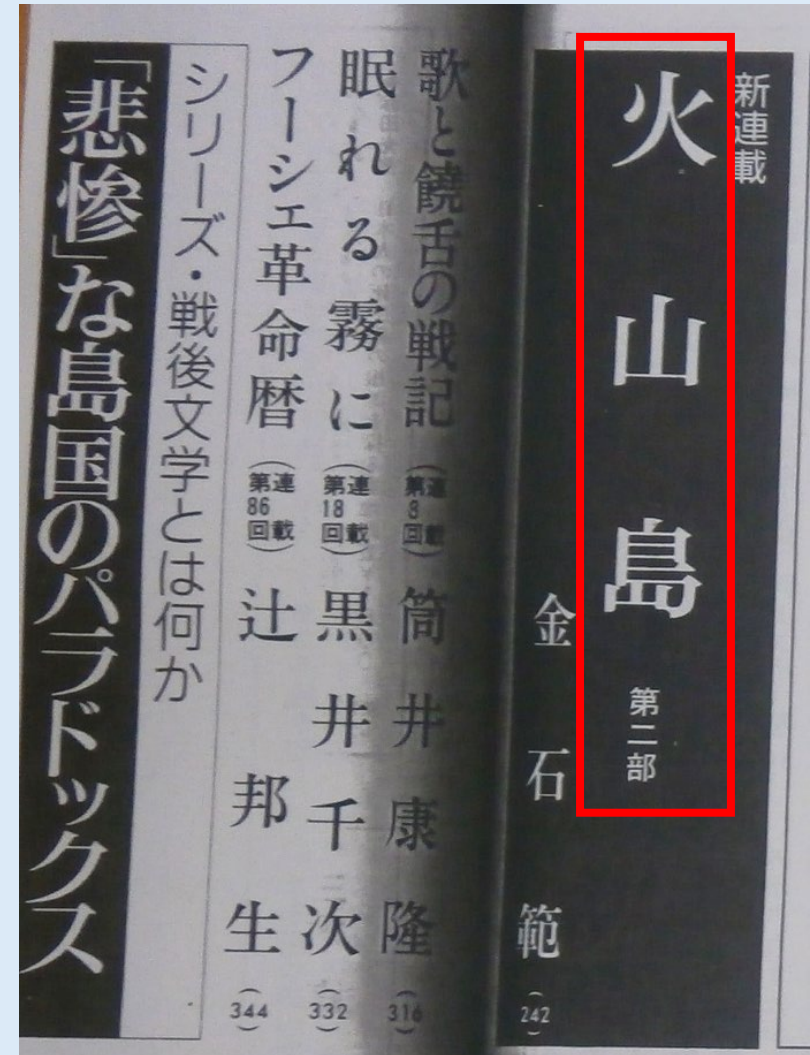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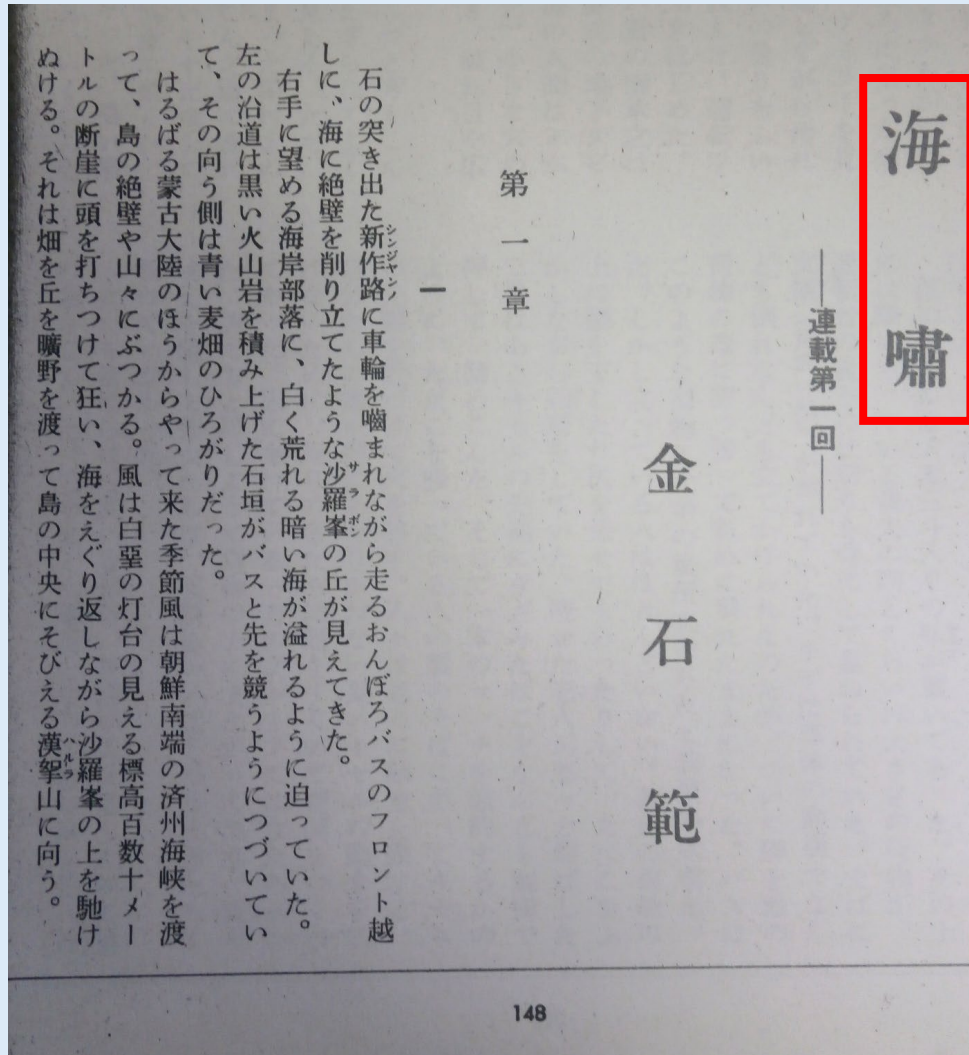
이호철 · 김석희 옮김, 실천문학사, 1988



1. 『화산도』와 김석범 문학 연구

「해소」, 『文學界』, 文藝春秋, 1976.02-1981.08

「화산도 제2부」, 『文學界』, 文藝春秋, 1986.06-1995.09



1. 『화산도』와 김석범 문학 연구



- 1-3권 : 1983년 6월, 7월, 9월
- 4-7권 : 1996년 8월, 11월, 1997년 2월, 9월
- 작품 내 시간 : 1948.02-1949.06
- 전체소설 : 인간을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존재로 총체적으로 파악(사르트르, 노마 히로시)
- 서사의 발상지 : 한반도, 일본 열도, 남방(한대용)
- ‘문예춘추’라는 매체에서 일본어로 활자화된 것의 의미

1. 『화산도』와 김석범 문학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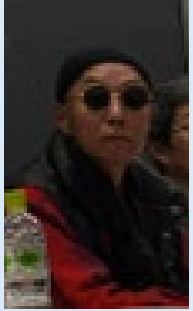
- 『화산도』 완역의 의미
- 서사의 발상지를 떠나 구 종주국의 매체, 언어에 의해 탄생한 것 자체가 자의든 타의든 식민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음을 방증
- 완역을 위한 역자 김환기/김학동의 고투, 완역된 『화산도』를 읽는 독자의 독서행위...주체적인 탈식민화의 영위이자 일본어 텍스트 『화산도』의 ‘사후의 삶’(발터 벤야민)을 낳는 산출의 과정

1. 『화산도』와 김석범 문학 연구



- “『화산도』를 포함한 김석범 문학은 망명문학의 성격을 띠는 것이며, 내가 조국의 ‘남’이나 ‘북’의 어느 한쪽 땅에서 살았으면 도저히 쓸 수 없었던 작품들”
- “원한의 땅, 조국상실, 망국의 유랑민, 디아스포라의 존재, 그 삶의 터인 일본이 아니었으면 『화산도』도 탄생하지 못했을 작품”
- 『화산도』는 한국의 유사식민지적 억압 속에서는 결코 싹을 틔울 수 없었던 ‘디아스포라의 정치적 글쓰기’

1. 『화산도』와 김석범 문학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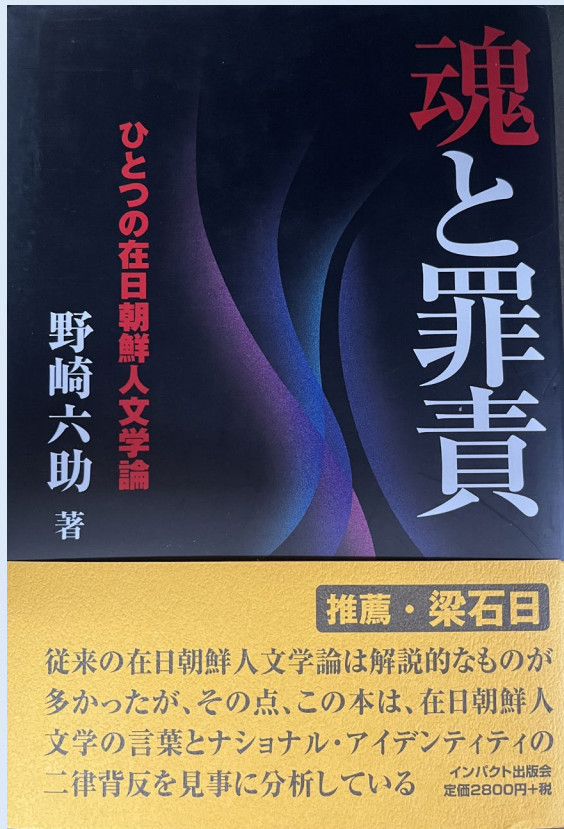


문학평론가

노자키 로쿠스케

“작자가 『화산도』를 통해 추구한 것은 별도의 ‘이야기’(Histoire)가 아니라, 별도의 ‘역사’(Histoire)”이고, “망명자문학”으로서의 『화산도』는 “어두운 유명(幽冥) 속을 비틀거리며, 파편으로 흩어진 역사체험을, 정신이 아찔해지도록 둔하고 느리게 습집하는 작업”

➤ 김석범은 조국의 공적 역사에 4·3이 쓰여지지 못한 상황에서, 망명자로서 몽타주 작업을 통해 4·3의 전체상에 다가설 수 있는 관점을 확보하는 저항의 글쓰기를 수행



1. 『화산도』와 김석범 문학 연구

김석범(金石範) 문학을 읽는 여러 가지 시각*

-그 역사적인 단계와 사회적 배경-

鄭大成**
ti-yds@hanmail.net

<要 旨>

『鶴の死』から大作『火山島』をへて最近作にいたるまで、済州島四・三事件を『在日』の立場から描き続けた金石範の文学(アンガー・ジュマン)は、歴史的反映の逆風の中でも、『戦後文学の最高峰』との評価すら与えられるに至った日本でも、歴史再建たけなわなら今だその位置づけさえ定まっていない韓国でも、実に様々な読み方をされてきた一方、不当なまでの斥けられ方・忘れられ方をされてきた。本研究は、韓国と日本の現代史に留意しつつ、その読み方(脚註を含む)のプロセスを概観・整理し、その疑め・忘却の論理をたどり、現代社会における金石範テキスト再発見の足がかりを形作り、その再読の意味を問い直してみようとしたものである。韓国では、反共軍事独裁体制のもと読書文化が抑圧されてきたが、そうした体制に抵抗しそれをたおした民主化運動を背景として民族主義的な立場から金石範文学を四・三文学の範疇に入れようとする流れが形成されてきた。が、金石範テキストに『日本の私小説的な側面がある』と誤解されたりもし、日本語文学=日本文学という短絡が、韓国語文学=韓国文学という常識の裏返しとして存在してきた。日本では、市民運動や実存主義が盛んだった1960年代より今日まで金石範文学はある意味で良質の読者に恵まれてきたと言えるが、それを世界にプロデュースする自由市民の(第三)世界文学とする一部の観点が一般化されるまでには至っていない。つまり、ポストコロニアルな現況において、戦後の清算を果たさぬままアメリカ産属に安住している日本と、その日本の近代に植民地支配された後もそれに世襲した近代化路線を邁進してきた韓国は、日本との関係で国民国家という奇妙な儀儀構造をなし、金石範文学(およびその思想と行動)のごとき超絶的可能性は、その狭間に取り寄せられてきた。それは、一國主義の神話、『国文学』の三位一体説、マジリティーの専横、個人もしくはマイリティーの軽視、冷徹的な固定観念、欧米中心主義、国家へのゲグモニー、そして他者への想像力やコミュニケーション能力の欠如などに起因している。必要なのは、かといって反近代や反米観北に帰一することなく、近代と第二次世界大戦によって生まれた金石範(はじめ在日)という存在から今や醸し出されんとする知恵そのものを韓日双方(そして関係各国)の反射鏡(リフレクター)とすることだ。と同時に、<金石範>を四・三、不遇性、差別・虐待されるしかない弱者、祖国志向の一世文学などといった既成のイメージからさえも解放し、歴史に立ち向かい世界に屹立する主体的な受難、ノーベル文学賞クラスの責任あるテクニクとして読み直すことだ。そうしたパラダイムの転換によって、近代至上主義的な二項対立や前近代のかつ即自的な構造的意識、さらには悲観的予定調和の世代論などによって<金石範>を引き裂き孤立させたが如きことは反省され、逆に、金石範テクニクに盛り込まれた自由民主主義の豊穡性、個の実存の普遍性によってこそ、<国家>的な分断による閉塞した精神(こころ)・言語(ロクス)の画一化・全体主義的な質しきのうらみが是る克服し返されるはずである。日本・韓国・在日・アメリカなどの研究者・読者には、それぞれの立場から認識が新たにされてゆくであろう。

キーワード：済州島四・三事件、金石範、民族、国民国家、自由民主主義、マイリティー、普遍性

1. 들어가며

2004년 노벨문학상을 고은 시인이 놓쳤다. 그가 노미네이트된 이유는 민주화 운동에의 기여도가 높이 평가되어서였는데 현재 한국은 민주화의 타성으로서의 대중주의 속에서 여러모로 혼신을 겪고 있다. 한편, 일본은 전보진영이 복류하고 갖가지 우경화 움직

* 이 논문은 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4-072-AS0206)

** 서울여자대학교 일어일본학과 전임강사

- ① 『화산도』 등 문학텍스트에 나타난 현대사나 작가의 정치사상, 자전적 요소 등을 되짚어보는 방법
- ② 재일조선인의 동화 경향을 전제로 해서 세대론적 시각에서 ‘1세 문학’ 틀에 가두어놓으려는 방법
- ③ 구식민지 일본어문학으로 인정하면서 중국문학이나 제3세계문학과와의 비교 등 어느 정도 폭넓은 시야에서 접근하는 방법
- ④ 4·3문학 등 한국문학의 틀에 놓고 보면서 유보적인 평가를 하는 방법
- ⑤ 민족문학으로서 인정하면서 세계문학으로 이어지는 회로를 의식하여 발전적 평가를 하는 방법
- ⑥ ‘재일조선인문학’ 자체를 ‘일본문학’의 ‘공범자’로 낙인찍는 방법

1. 『화산도』와 김석범 문학 연구

제1회 제주4·3평화상(2015)



제1회 이호철통일로문학상(2017)



1. 『화산도』와 김석범 문학 연구

大佛次郎賞
第11回受賞作決まる

第十一回「大佛次郎賞」は、朝日新聞社が委嘱した選考委員による選考の結果、次の二氏に贈ることになりました。
(11面に「人と作品」紹介)

候補作品は今年四月末以来、読者の推薦と有識者のアンケートによる推薦を求め、読者推薦二百三十点、有識者推薦百六十五点を合わせて選考し、受賞作を決定しました。

金石範・芳賀徹両氏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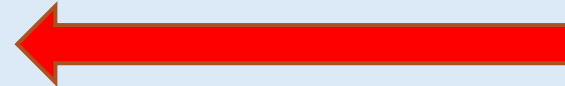
一、「火山島」全三巻(文芸春秋) 金石範
一、「絵画の領分」(朝日新聞社刊) 芳賀徹

贈呈式は八日午後二時から東京・築地の朝日新聞東京本社で行い、賞牌(しょうはい)と賞金各巨万円を贈ります。

○選考委員
井上靖、加藤周一、河野健一、河島彦太郎、都留重人、鶴見俊輔、泰正隆、渡辺格(アイウエオ順、敬称略)

朝日新聞社

1984年
제11회 오사라기지로상
주최 : 아사히신문



1984年(昭和59年)10月1日 月曜日 35466号 (日刊)

朝日新聞

1日 山彩る
品三和銀行

商業地は高騰
東京都内で7.6%

宅地価格安定続く
伸び2.6%に鈍化(基準地調査)

仁川・北坪港でも
北朝ソウル視察持ち越す

救援物資授受

大佛次郎賞
第11回受賞作決まる

金石範・芳賀徹両氏に

朝日新聞社

1. 『화산도』와 김석범 문학 연구

金石範さんが、八万もの同胞が虐殺されたふるさと済州島の惨劇、「四・三事件」をめぐる青年群像を描いた『火山島』は、昨年（一九八三年）夏、文芸春秋が刊行した作品です。発売以来、半年あまりたった今日でも書店からの注文は切れることなく続いています。四百字詰原稿用紙で約四五〇〇枚、日本語訳のトルストイ『戦争と平和』とほぼ同じ長さの大長篇を、みなさんがどのように読んでおられるか、出版を担当した者として、大いに関心あることです。

発売当初、『火山島』のよく出る地域は、大阪市と北九州市でした。おそらく、済州島の出身者が数多く生活しておられるところと察します。日ごろめったに注文をいただかない書店からも、「お客さんに前金をもらっていますから」と、強い引き合いがありました。深い沈黙の中で、一字一句が読まれていく――

『火山島』を

英訳なさる方は

ありませんか

高橋 一清

— そのような印象を受けました。ところが、去年の暮ごろから、そうした特定の地域からだけでなく、全国各地より広く注文が届くようになりました。『火山島』が、一民族の悲劇を扱った物語としてでなく、文芸的に秀れた作品として受けとめられ、読み始められたような感じを抱きました。反響が直接伝えら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こんなに夢中で読んだ作品はめずらしいことだ」と、読後感を興奮して伝える読者の電話を、何本も受けました。

実際、この作品は、金石範という作家が、生涯の使命としている題材を、長年の文学体験の蓄積から生み出した小説方法によって書き上げたもの、作品の持つ重み、作品にかけた創意工夫はなみなみならぬものです。そして、それは在日朝鮮人文学の水準を高めただけでなく、日本文学の大きな収穫として、永く文学史に明記されていくものと思います。

『火山島』は、国境や時代をこえた、普遍的な人間の営みを扱った広く大きな物語ですが、その舞台となる朝鮮については、その衣食住のことまでが、実に細やかにいきいきと描かれていくことで、よく「家」のこと、「家族」のことを述べる個所では、日本人も同じ儒教道徳を体した者として、また、巫祭の場面などは、私たちのどこかに残されているシヤマニズムに触れてきて、程度の差こそあれ、心情的に共感を得ることでしょう。このように『火山島』は、小さな民族の範囲をこえ、東洋人のある共通性のあるなかで書かれている作品のように思われた。

もっとたくさと思ううち、いつしかヨーロッパやアメリカの人たちが、これを読んだら、朝鮮人について、いや東洋人について、大きな発見と理解が得られるのでは、と思うようになり、そのためには、やはり朝鮮人の方がそれにあたられるのが、最もふさわしいと思うのです。そして、世界史の一行として当然記述されるべき民族の惨劇を伝える物語として、『火山島』は、他の言語に移され、もつともっと世界への多くの人たちに読まれるにふさわしい作品と思うのです。

そうした作業がなされたあと、この作品が起すであろう大きな反響は、想像に難くありません。日本でより、かえって大きな評価を得るのでは、と思うのです。そして、ひょっとして「N—賞」（断わるまでもないでし（次頁へ）

■ 다카하시 기요카즈(『화산도』 담당 편집자)

“좀 느닷없지만 『화산도』를 우선 영어로 번역하실 분 안 계신지요. [...] 세계사의 하나로 당연히 기술되어야 할 민족의 참극을 전하는 소설로서, 『화산도』는 다른 언어로 옮겨져 더 많이 더 많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읽힐 가치가 있는 작품이라 생각합니다.”

2. 김석범 문학을 읽는 범주

재일조선인문학

디아스포라문학

일본어문학

망명문학

민족문학

한국문학

4·3문학

세계문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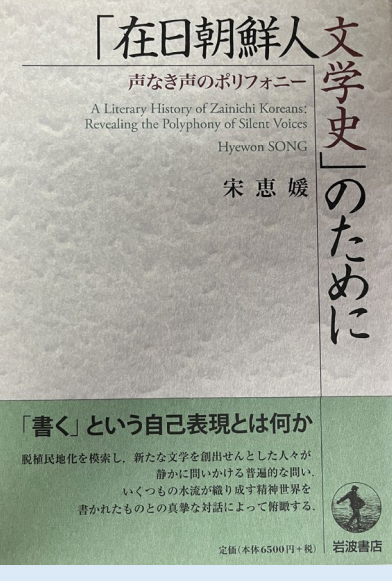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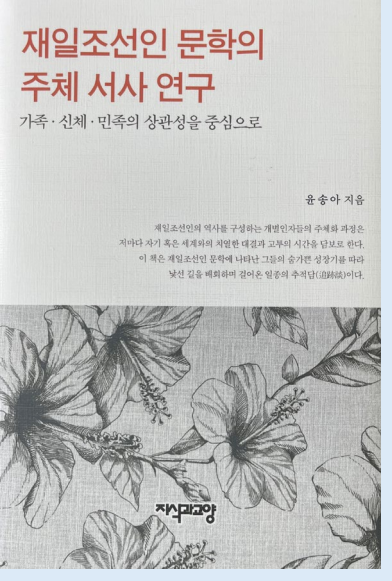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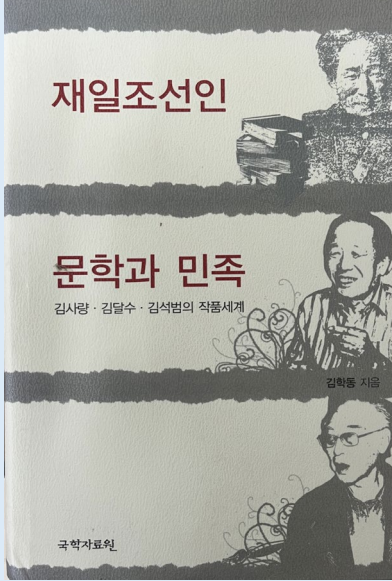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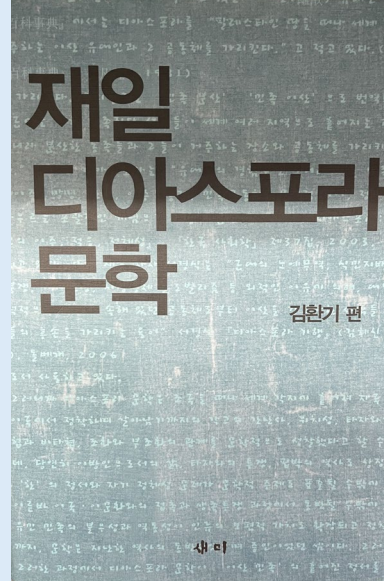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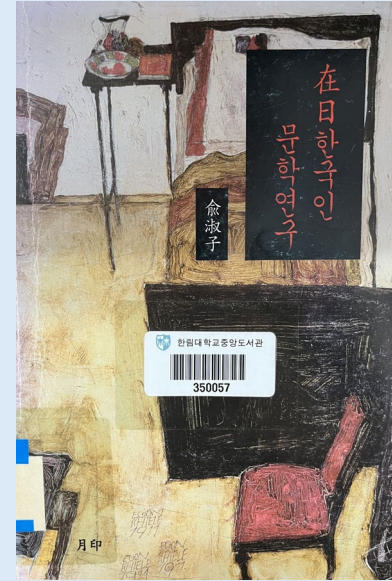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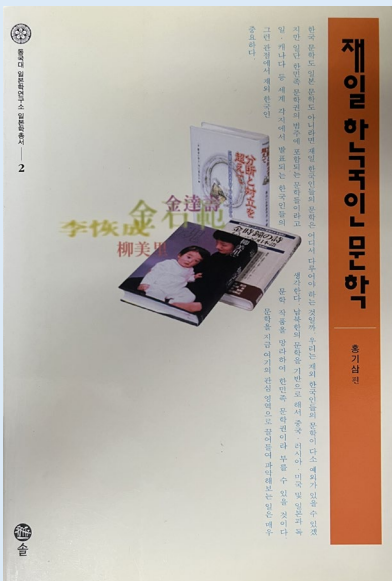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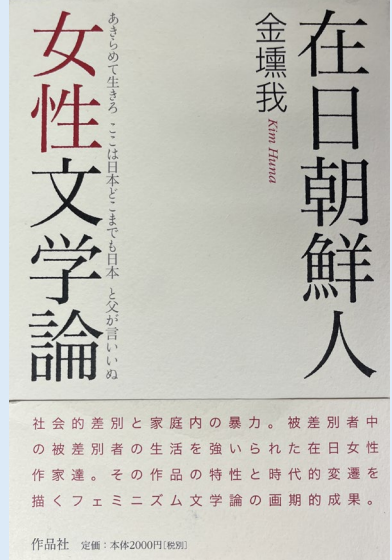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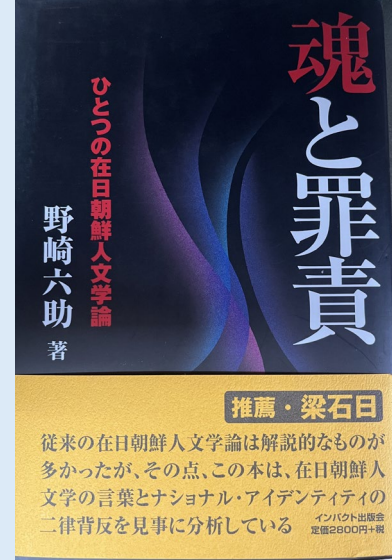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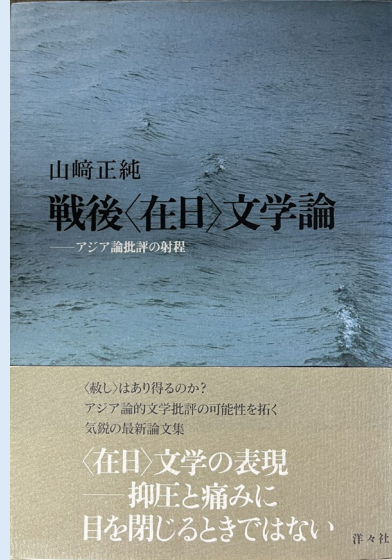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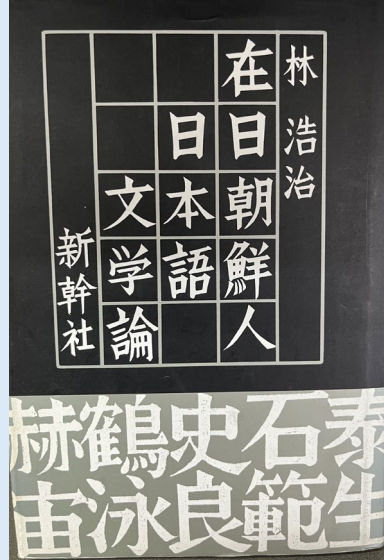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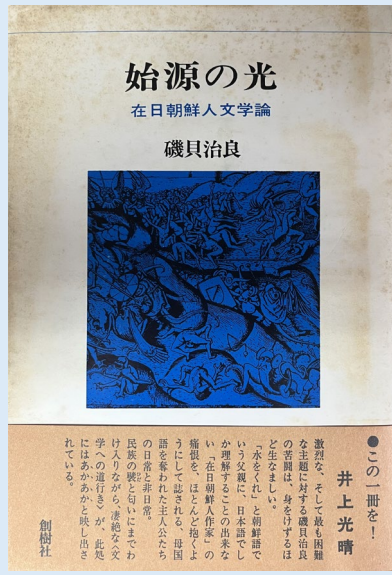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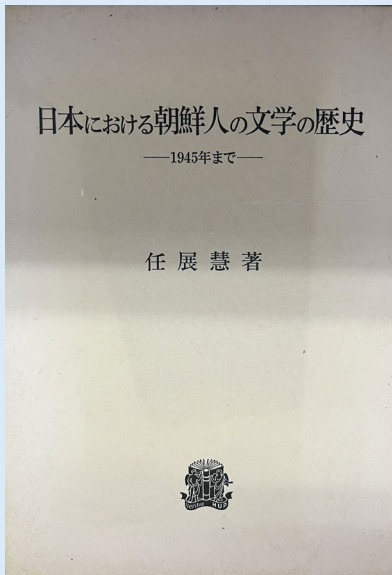
재외동포문학

재일한국인문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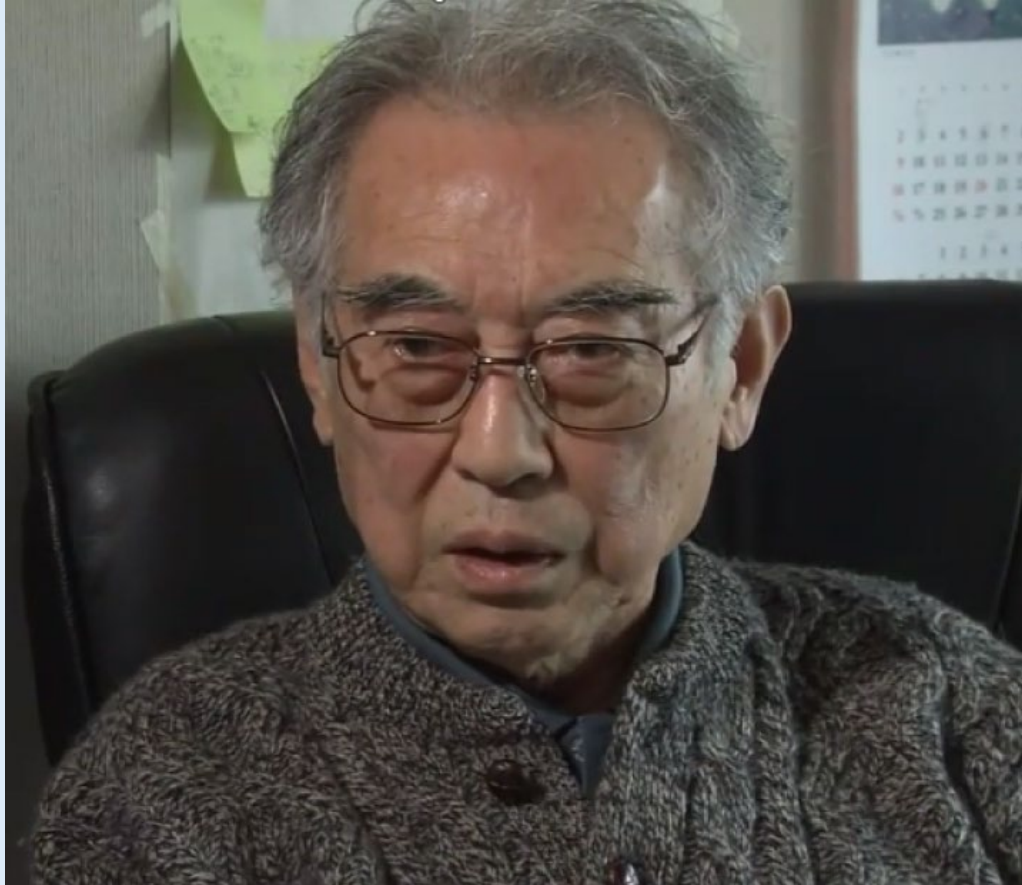
제주문학

일본문학

2. 김석범 문학을 읽는 범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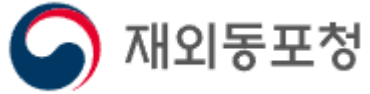


2. 김석범 문학을 읽는 범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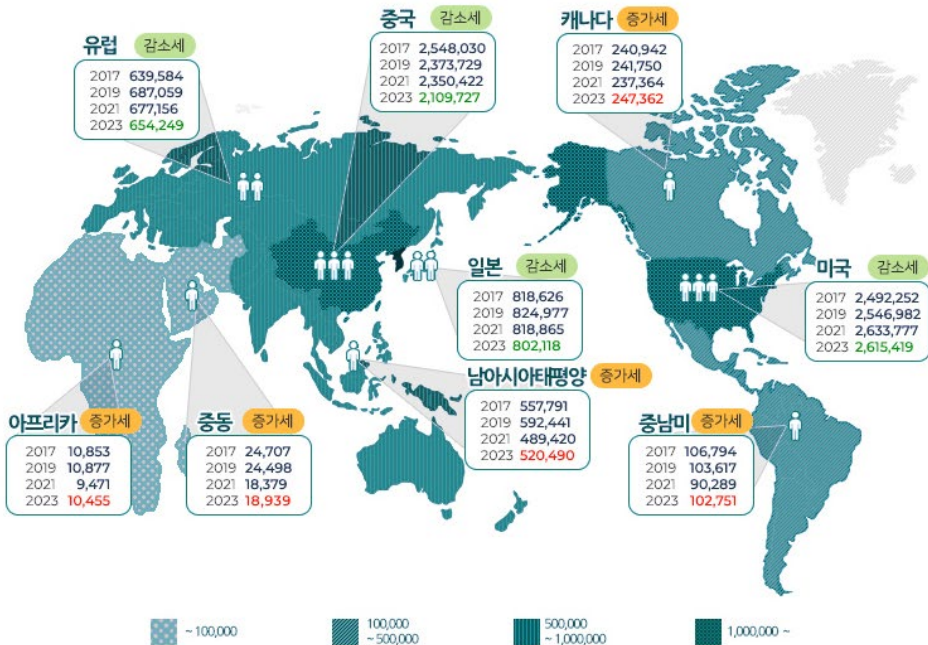


- “재일조선인문학이라는 것은 일본제국주의 정책의 산물이자, 과거에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고 식민정책을 펼친 것의 부산물”
- ‘디아스포라’에 의한 문학이자 ‘망명자문학’
 - 구 종주국인 일본에서 글쓰기를 위한 언어로써 일본어를 선택한 데에서 나온, 고심 끝에 내린 규정

2. 김석범 문학을 읽는 범주



재외동포분포현황 (193개국 708만 1510명)



디아스포라 영화제
Diaspora Film Festival

2013. 11.1(금)~11.2(토) 2일간
영화공간주안 ※무료상영

디아스포라(Diaspora):
① 그리스어로 디아스포라는 "흩어지다, 퍼뜨리다"를 뜻함.
② 원-581 난민이나 이주민과 같이 어떤 민족이나 국가를 가진 사람들이 살던 지역을 떠나서 영구히 다른 지역에 정착하여 사는 것을 의미.

디아스포라영화제
Diaspora Film Festival
13

2025.5.16. -5.20.

인천아트플랫폼, 애관극장, 인천미림극장
Incheon Art Platform, Ae Kwan Theater, Incheon Milim Theater

2. 김석범 문학을 읽는 범주

문화일보

“한국학 연구 재외동포에 초점 맞춰야”

미분류

2001-12-17 | 정희정

기사원문 ☆ 스크랩 🔊 뉴스듣기

가 가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이인호) 창립 10주년 국제학술회의 ‘한국과 세계의 만남’은 전 세계 한국학 연구자들이 한 자리에 모인 한국학 연구의 결집체였다.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13,14일 이틀동안 열린 학술회에서 발표된 논문만 해도 26편에 이르렀다. 14개국 100여명의 한국학 학자와 한국전문가, 국제교류사업 관련자 등이 참석해 한국학의 현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논의하는 등 열띤 토론을 벌였다. 동암연구소 이사장이며 예일대 동아시아지역 연구 명예감독으로 활동중인 전혜성씨는 이번 학술회에서 ‘재외동포와 인터넷시대의 문화전락’이라는 논문을 발표하며 “한국학의 연구대상을 한국이라는 국가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전세계 160여개국에 흩어져 사는 7300만명의 재외동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해 관심을 끌었다. 그는 “한국의 재외동포수는 전세계에서 13번째로 많으며, 인구대비 비율로 따지면 화교, 유대인, 이탈리아인에 이어 세계 4위이지만 이에 대해 관심을 갖는 연구자가 적다”고 지적했다. 또 “글로벌화를 이해하기 위해 **디아스포라(Diaspora·離散)**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라며 “재외동포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학이 협소한 한 국가에 대한 연구라는 선입견도 없애고 더 많은 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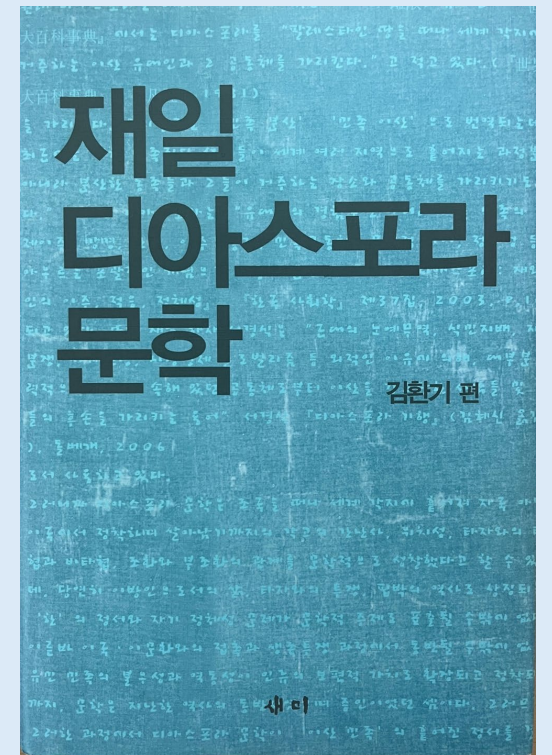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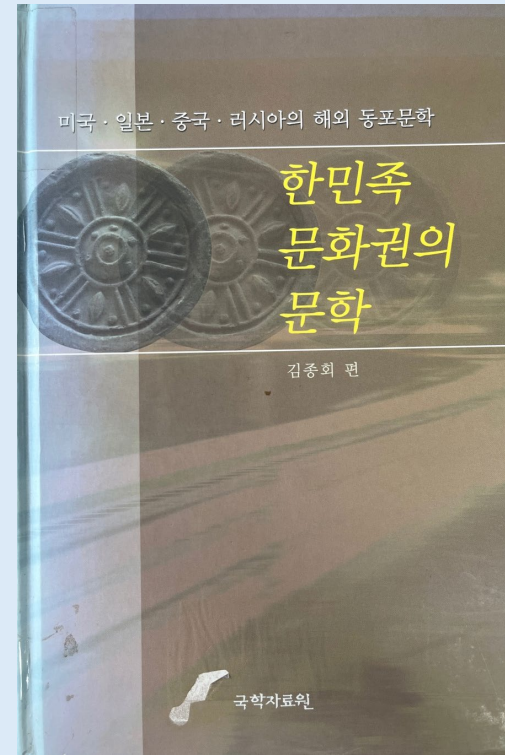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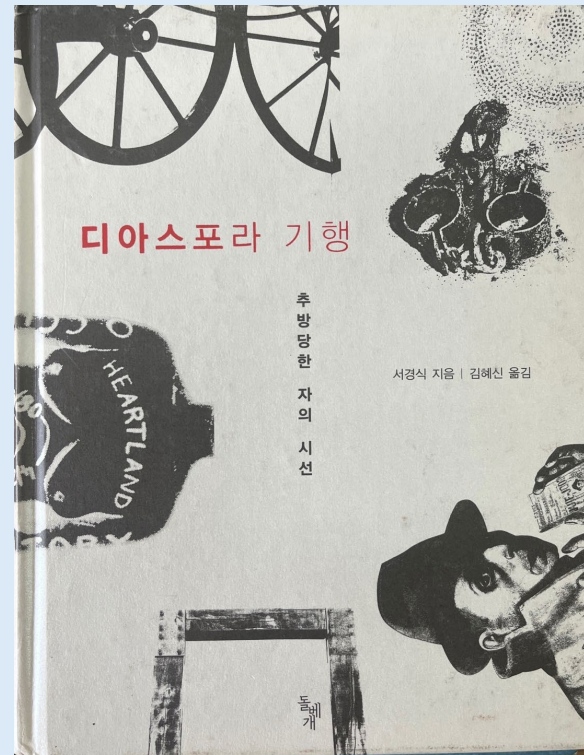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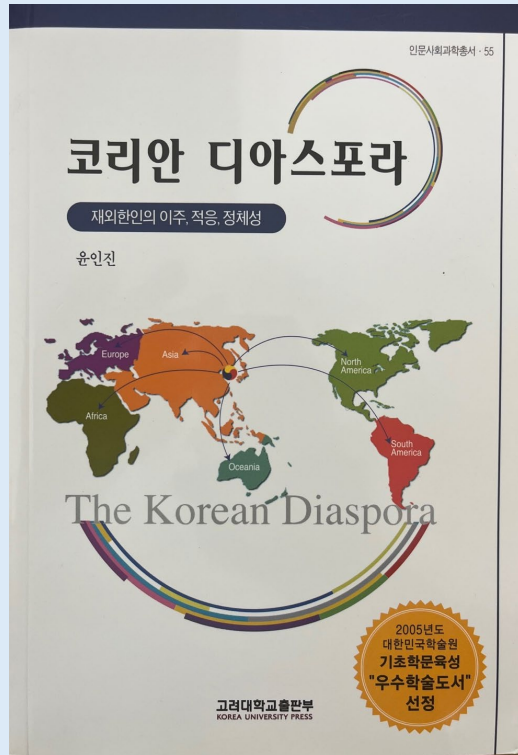
이번 행사에는 전세계 한국학 학자들이 모인 만큼 연구방법론에 대한 견해차도 드러났다. 네덜란드 레이든대 바우더베인 발라번 교수는 유럽과 미국의 한국학 현황을 비교하며 “미국에선 학제연구가 강조되지만 유럽에선 학제연구가 어렵다”고 말했다. 다양한 주장이 제기된 이번 학술회는 한국학이 중국학·일본학 등 인접 학문과의 소통을 통해 동아시아 지역 연구의 연결고리로서 위상을 높여야 하며 미국과 유럽, 한국의 한국학계의 공동연구와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각인시킨 행사였다.

한편 유럽에서의 한국학 연구 실태를 조사 보고한 영국 런던대 SOAS 한국학연구소 박영숙교수는 ‘국내와 해외 한국학의 효과적 연계방안’이라는 논문에서 “해외 한국학 진흥을 위한 한국 정부기금이 서양 박물관의 한국관에 관람객을 유치하는 데 사용되는 등 단기적이고 비효율적인 이벤트를 후원하는 데 쓰이는 경우도 많다”고 꼬집었다.

/정희정기자

- 한국국제교류재단 창립 1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한국과 세계의 만남〉 (2001.12)
- “한국의 재외동포 수는 전 세계에서 13번째로 많으며, 인구대비 비율로 따지면 화교, 유대인, 이탈리아인에 이어 세계 4위이지만 이에 대해 관심을 갖는 연구자가 적다”
- “글로벌화를 이해하기 위해 디아스포라(Diaspora·離散)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
- “재외동포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학이 협소한 한 국가에 대한 연구라는 선입견도 없애고 더 많은 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2. 김석범 문학을 읽는 범주



2. 김석범 문학을 읽는 범주

서울신문

"돌아갈 고향없는 고통 소설로"/'한민족문학포럼' 기조강연 在日작가 이회성

문화>미술_건축 | 문화>출판 | 문화>전시_공연

2003-09-04 | 이종수

경향신문

<동아시아의 오늘과 내일> (23) 초국가시대의 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화>출판 | 국제>미국_북미

2007-07-07 |

한겨레

[디아스포라의 눈]재일조선인이 '과거의 망령'일지라도

문화>출판 | 문화>영화 | 문화>생활

2007-06-09 | 서경식

한겨레

[디아스포라의 눈]5월과 6월을 기억하고 증언하라

문화>출판 | 문화>예술_문화재 | 국제>일본

2007-06-23 | 한승동,서경식

문화일보

<지구촌 전망대>한인 디아스포라 파워

국제>미국_북미

2007-07-20 | 위성턴

중앙일보

존 리 "전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 활용해야"

사회>교육_시험 | IT_과학>IT_과학일반

2007-09-19 | 배노필

경향신문

황해문화,재일 '디아스포라' 현실과 정체성 조명

문화>출판 | 국제>일본 | 정치>정치일반

2007-12-04 | 손제민

국민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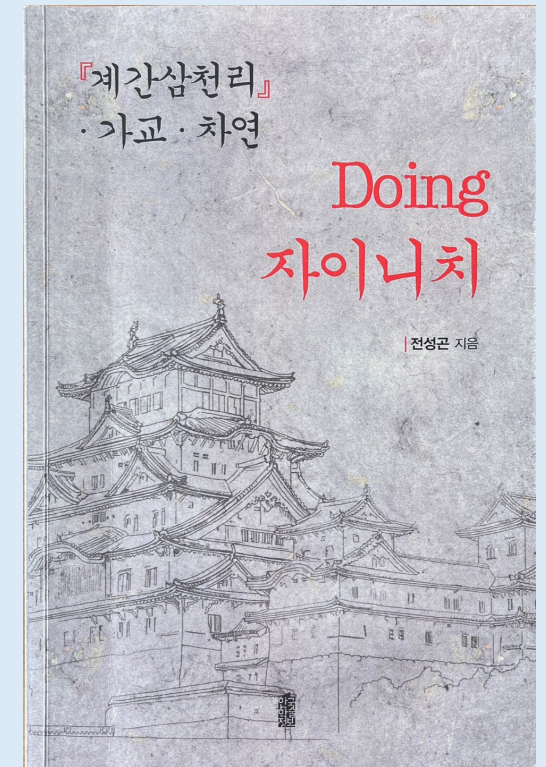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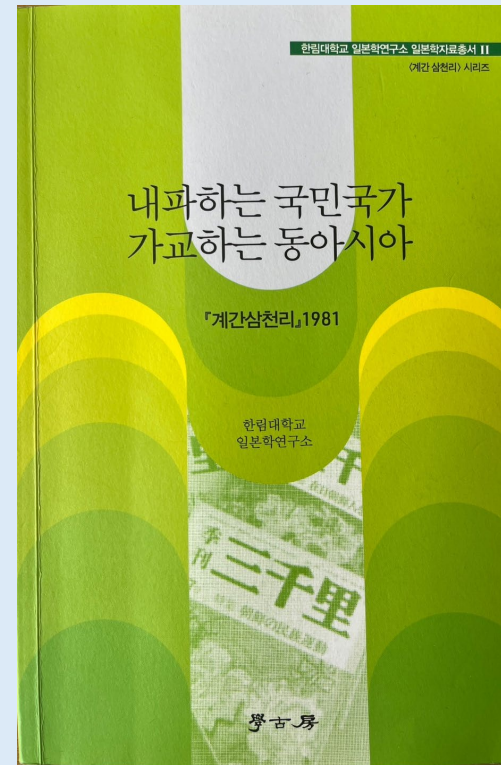
[한국인 디아스포라의 재발견] 19C초 조선 이재민들 농토 개간하며 정착

문화>출판 | 국제>중국 | 국제>러시아

2009-01-21 | 윤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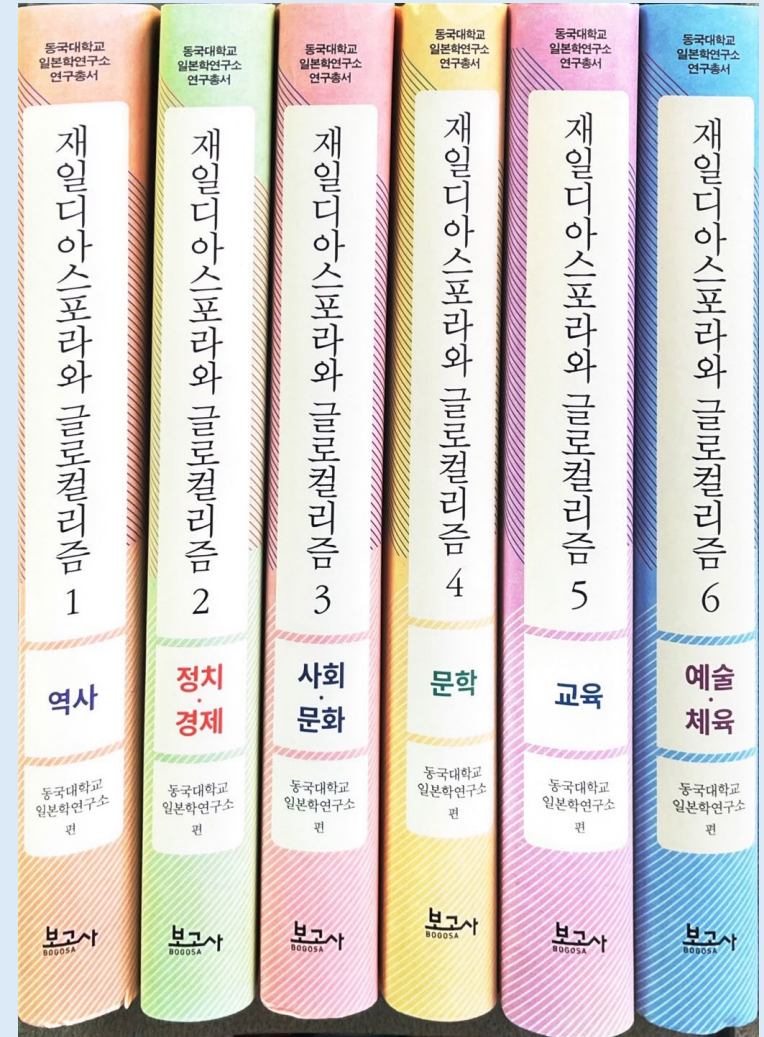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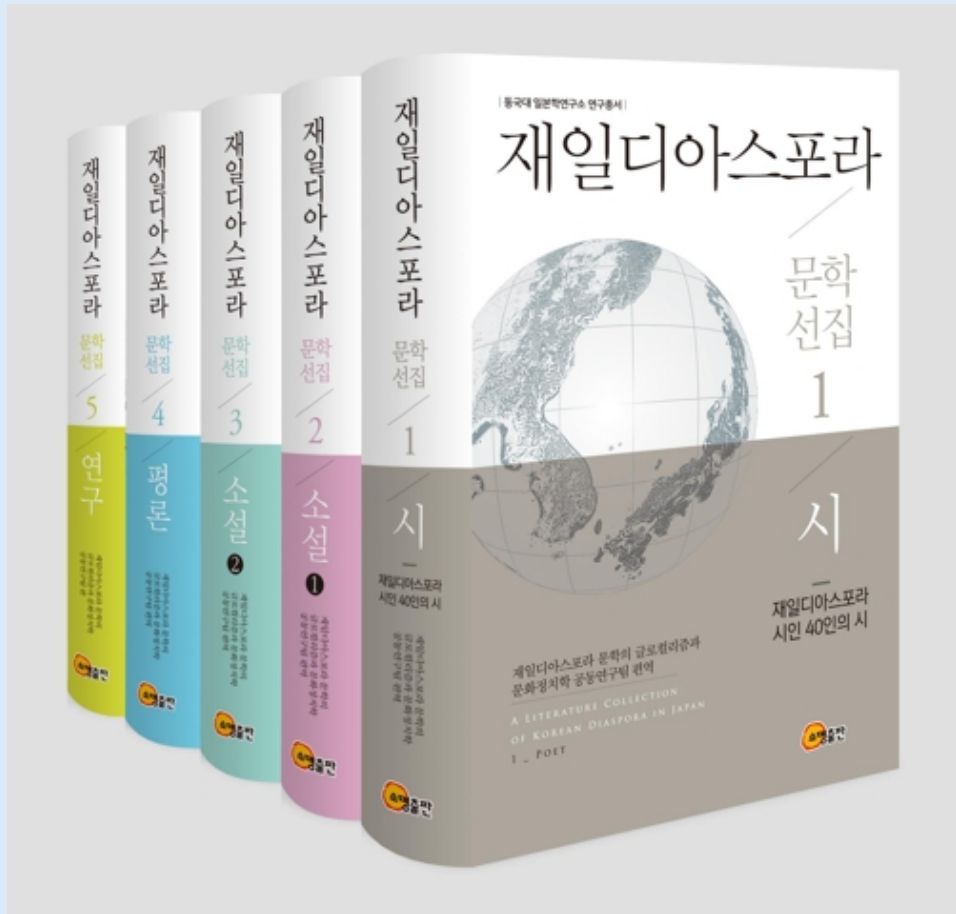
2. 김석범 문학을 읽는 범주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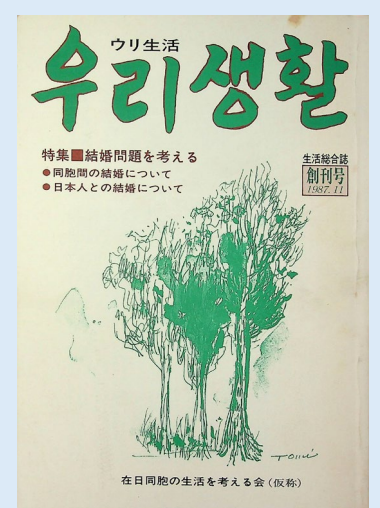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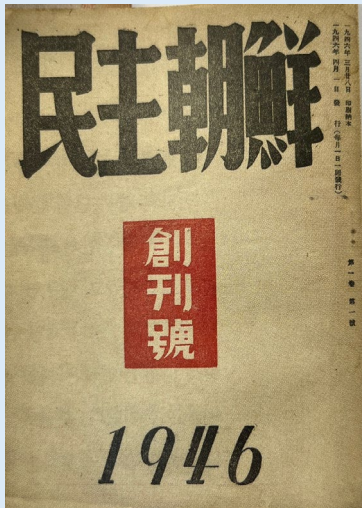
2. 김석범 문학을 읽는 범주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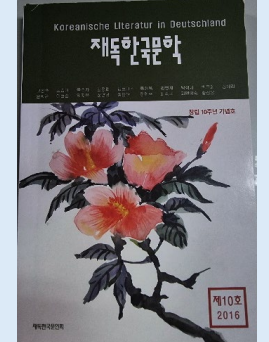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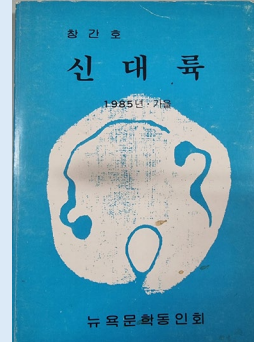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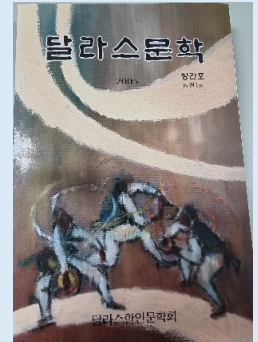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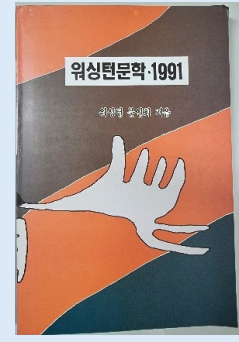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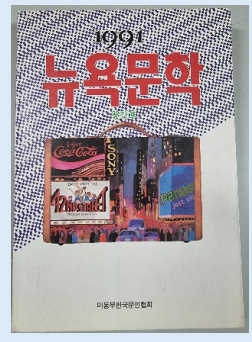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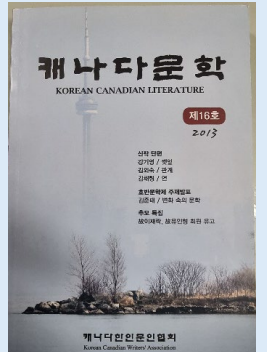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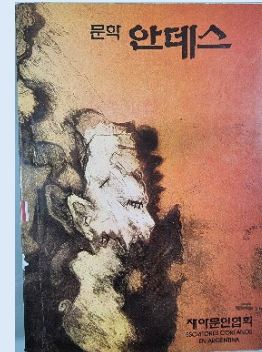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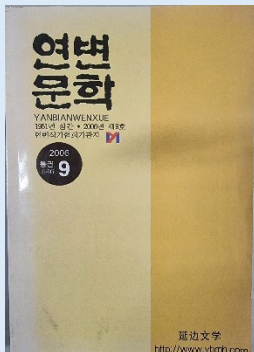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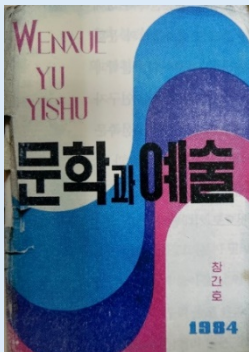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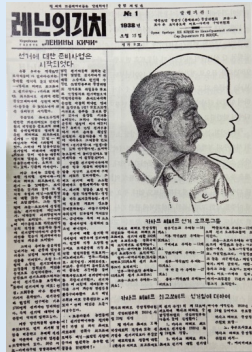
2. 김석범 문학을 읽는 범주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 김석범 문학을 읽는 범주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 김석범 문학을 읽는 범주

1988년 이후 번역되는 한인 디아스포라 문학



2. 김석범 문학을 읽는 범주

1988년 이후 번역되는 한인 디아스포라 문학



2. 김석범 문학을 읽는 범주

1980년대 소환되는 재일 지식인



부음

한국근대사 연구에 공헌한 在日 역사학자 강재언

한국근대사, 특히 개화기와 개화사상 연구에 크게 공헌한 재일교포 역사학자 강재언(姜在彦·91)씨가 지난 19일 별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926년 제주도에서 태어난 강씨는 1950년 일본으로 건너가 오사카상과대(현 오사카시립대) 정치경제과를 졸업한 뒤 역사학으로 전공을 바꿔 교토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교토 하나조노(花園)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의 개화사상' '한국의 근대사상' '한국근대사연구' 등의 저서를 통해 조선 후기 실학을 계승한 개화파가 형성되는 과정을 밝혔다.

또 '조선의 서학사' '서양과 조선' 등 저서를 통해 서양 문화와 종교의 한국 전



래도 추적했으며, 한·일관계를 역사적으로 조망한 '조선통신사의 일본견문록' '한일교류사' 등 저서도 냈다.

1996년에는 그의 주요 연구 업적을 담은 '강재언저작선' (전 5권)이 간행됐다.

강씨는 재일교포의 현실과 권의 향상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여 뜻을 같이하는 학자·문인들과 함께 계간지 '삼천리' '청구'의 편집위원으로 활동했고 '재일 한국·조선인·역사와 전망' 등 저서도 냈다. 1991년 제1회 KBS 해외동포상(학술상), 2006년 국민훈장 모란장(학술 부문)을 받았다. 이선민 선임기자

조선일보
2017.11.24

2. 김석범 문학을 읽는 범주

1980년대 소환되는 재일 지식인

日의「韓半島 지배物證」七支刀 銘文
 「戰後 改作 혐의의 길다」
 李進熙 씨 주장... 日古考學界에 파문

【東京二日電】日古考學界(古物學界)의 7支刀(七支刀)의 銘文(銘文)에 關한 研究(研究)가 進行(進行)中(中)이다. 이 研究(研究)는 戰後(戰後)에 改作(改作)된 物證(物證)의 眞實性(眞實性)을 究明(究明)하기 爲(爲)한 試圖(試圖)이다. 이 研究(研究)는 日古考學界(日古考學界)에 大(大)きな 反響(反響)을 招(招)いた. 이 研究(研究)는 戰後(戰後)에 改作(改作)된 物證(物證)의 眞實性(眞實性)을 究明(究明)하기 爲(爲)한 試圖(試圖)이다. 이 研究(研究)는 日古考學界(日古考學界)에 大(大)きな 反響(反響)을 招(招)いた.

「韓国인의 日本」출간
 在日사학자 李進熙 씨가 일본 의역한 책
 의 사정을 위해 집필한 저서 「韓國인의 日本」(동화출판사)을 출간했다.



在日사학자 李進熙 씨가 「韓國인의 日本」 출간

日本에 살아있는 韓國

小学校 때부터 三韓정벌 배우며 日古사에 熱中
 級友들은 “朝鮮人정벌하자” 항상 불러대

나의 體験



△1919년 11월 14일 태어난 이 작가는 1937년 10월 10일 18살 때 三韓정벌을 외치는 朝鮮人정벌군에 입대했다. 그는 1941년 12월 15일 22살 때 日本에서 戰死(戰死)했다. 그의 遺稿(遺稿)은 1950년 12월 15일 31살 때 日本에서 出版(出版)되었다.

2. 김석범 문학을 읽는 범주

1980년대 소환되는 재일 지식인

제24246호 조선일보

문화 Culture

http://www.chosun.com

21 1998년 12월 22일 화요일 40판

無國籍 在日교포 정체성 논란

교포작가 이회성씨 한국 국적 취득 계기

재일교포 소설가 이회성(李恢成·63)씨의 한국 국적 취득 문제를 놓고 일본 유력 잡지 『세계(世界)』와 『신조(新潮)』에서 이씨와 또다른 교포 소설가 김석범(金石範·73)씨 사이에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두 사람은 모두 남북한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그동안 『조선』이라는 「국적 아닌 국적」을 고집해왔었기 때문에 이씨의 한국적취득이 재일교포 사이에 정치적 의미 를 갖는 것.

이씨는 월간 『세계』 99년 11월호에 게재한 글 「무국적자가 가는 길」에서 『소수로 정착한 무국적자는 교포사회에서 전위적 역할을 못하고 통일을 주도 한다는 것도 환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자기 존재를 분명히 하고 정치적 힘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 자신의 한국 국적 취득을 『고난없는 안전한 길을 택했다』고 비난한 김씨를 통렬히 재비판하고 나섰다.

논쟁의 발단은 이씨가 지난 5월 방한 때 한국 국적을 갖

다고 선언, 월간 『신조』 6월호에 이같은 자신의 입장변경을 밝히는 글을 실은 데서 비롯됐다. 이씨는 「한국 국적 취득의 기록」이란 제목의 이 글에서 「나의 절정은 한국 민주화투위 위해 애써온 김대중 정권이 틀어지고, 한국이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현실에 대한 깊은 인식 위에 고심 끝에 내려진

남북을 연결하는 완충지대로서 통일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논쟁은 표면상 이씨의 국적 변경에 대한 변호-공격의 양상을 띠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지난 50여년 모색을 거듭해 온 재일 교포들의 정체성, 역사관 문제와 밀접히 연결돼 있

잡지 「世界」「新潮」서 논쟁
소설가 김석범 「南北 다리役 포기」
추씨 “국적가져 정치적 힘얻자”

다는 점에서 일본 사회에서도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1948년 재일교포들이 남한과 북한 국적중 하나를 택해야했을 때 이들은 조국의 재결합을 염원하는 뜻에서 분단이전 국가인 『조선』을 주장했다. 재일교포 68만명 가운데 이들을처럼 『조선적(籍)』을 가진 사람은 15만명 가량, 이들을 매년 4천 적도 갖지 않은 재일교포들이



◆金石範
오사카 출생, 제주 4·3 사건을 다룬 『화산도(火山島)』를 비롯해 「고국행」, 「전향과 친일파」 등 작품을 내놓은 재일교포 1세대 작가. 98년 마이니치(毎日)에출삼(39회) 수상.



◆李恢成
사할린 출생, 사할린 한인들의 애절한 삶을 그린 「백년동산의 고독」을 비롯해 「금단의 땅」, 「유역」 등을 펴낸 작가. 72년 일본 최고 문학상인 아쿠타가와(芥川)상 수상.

있는 상황에서 유명 작가인 이회성씨까지 합세하자 고수파들은 대신에 가까운 감정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씨와 김씨는 각각 67년과 68년 조총련을 탈퇴했다.

이씨는 『경제난을 겪고 있는 한국을 보면서 일본에서 「망명자」나 「무국적자」로서 평온히 살 수는 없었기 때문에 국적을 취득했다. 재일교포들이 남북

한과 분리된 「제3세력」을 계속 주장한다면 결국 일본인으로 귀화하는 예비군으로 남게 될 뿐이다』라고 반박했다.

대표적 재일 한국인 지식인 사이의 이런 시각차가 앞으로 재일 교포 사회의 존재양식과 대(對)한국관에 어떤 파장을 드리울지가 관심사다.

<李俊浩기자·juno@chosun.com>

西紀 1988年 11月 8日

조선일보

文化

朝總聯 탈퇴... 「내 조국 南도 北도 아닌 朝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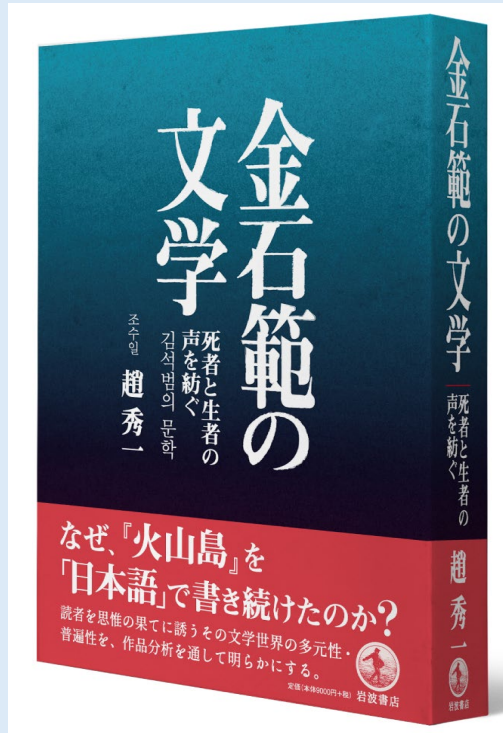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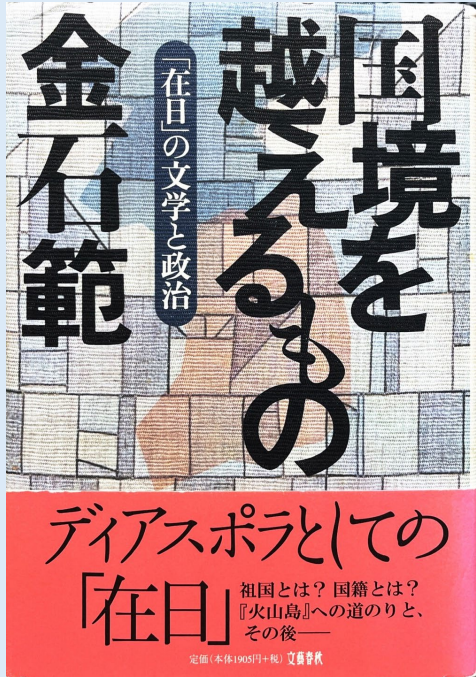


◆40여년만에 국적을 발원한 재일교포 본지가 김석범(金石範)씨를 인터뷰하고 있다.

【서울 8일 특파원 김석범 기자】 재일교포 40여년만에 국적을 발원한 재일교포 본지가 김석범(金石範)씨를 인터뷰하고 있다. 이씨는 월간 『세계』 99년 11월호에 게재한 글 「무국적자가 가는 길」에서 『소수로 정착한 무국적자는 교포사회에서 전위적 역할을 못하고 통일을 주도 한다는 것도 환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자기 존재를 분명히 하고 정치적 힘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 자신의 한국 국적 취득을 『고난없는 안전한 길을 택했다』고 비난한 김씨를 통렬히 재비판하고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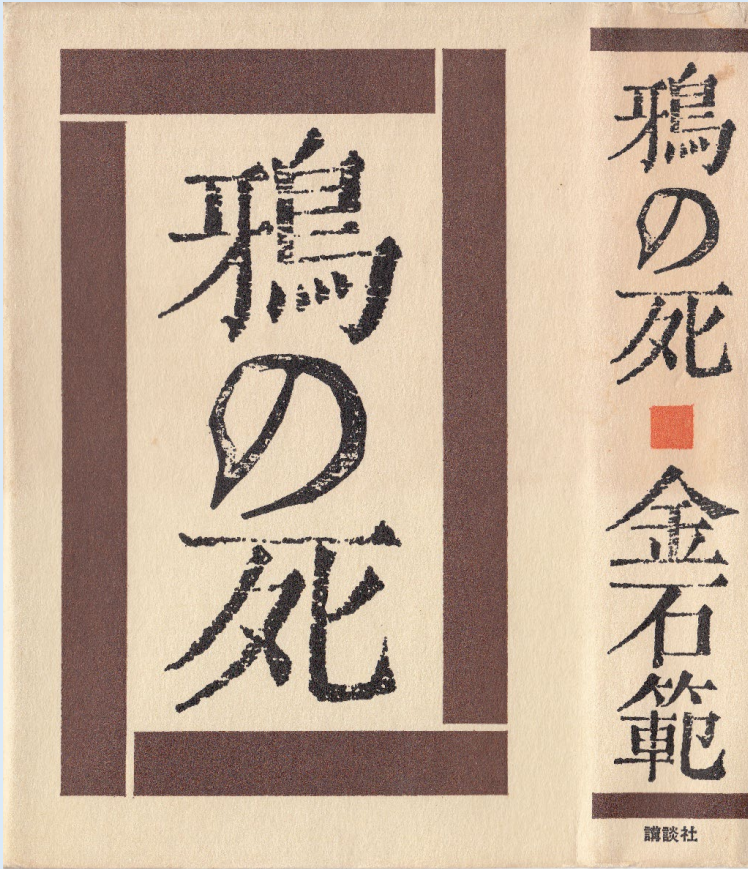
논쟁의 발단은 이씨가 지난 5월 방한 때 한국 국적을 갖

2. 김석범 문학을 읽는 범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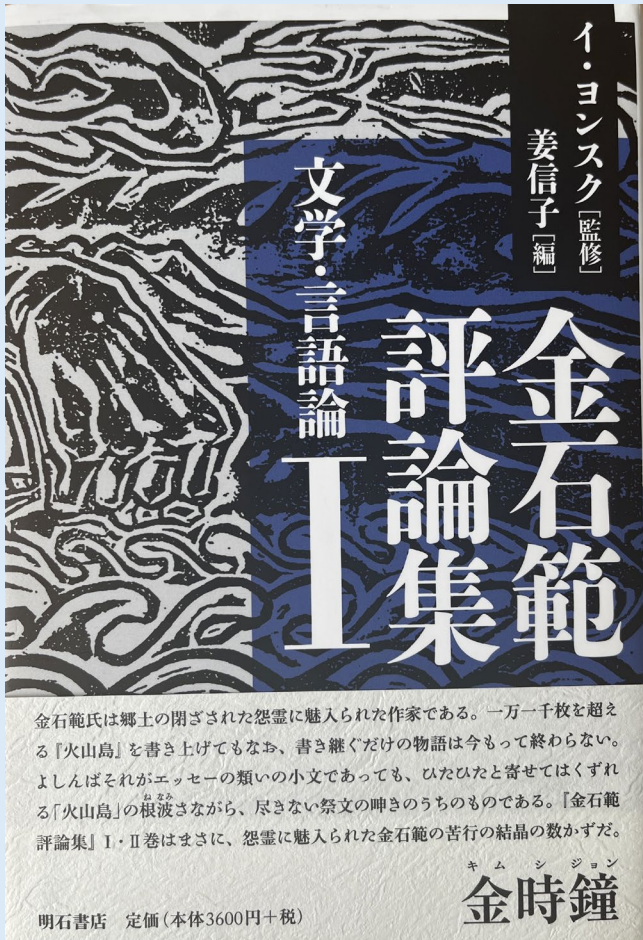
-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는 남북통일과 코리안 디아스포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역사의 재정립, 급속한 다문화사회로의 이행, 글로벌제이션에 동반되는 혼종성, 초국가주의, 글로벌리즘, 모빌리티, 코스모폴리터니즘을 고찰하는 연구에서도 디아스포라문학/일본어문학으로서의 재일조선인문학 다시 읽기가 이어지고 있다.
- 이러한 시점에 역으로 김석범 문학은 과연 어떠한 ‘일본어’로 쓰여졌으며, 그 ‘일본어’에는 어떠한 역사성이 내재하고 있는가 하는 점을 검토함으로써 작가 김석범의 능동적인 ‘일본어’ 문학의 성격을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3. 김석범 문학은 세계문학인가?



- 『까마귀의 죽음』과 『화산도』로 대표되는 김석범 문학에서 독자는 일본어라는 언어체계의 약속들을 낯설게 하는 문체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 다만, 그 이화 작용은 작품세계의 역사성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 주의를 요한다.
- 김석범 문학의 문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역사성이란, 8월 15일(1945년/1948년), 4월 3일(1948년), 4월 24일(1948년), 5월 18일(1980년)과 같은 날짜들이 상기하는 역사적 시공간과 관계한다는 점 또한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3. 김석범 문학은 세계문학인가?



• 호소미 가즈유키(細見和之)

“김시종의 표현에 비추어 내가 생각해 온 ‘세계문학’이란

- ① ‘국민문학’이라고 하는 틀을 탈구축하는 것,
- ② 자신의 표현언어 그 자체에 대한 불편함을 끊임없이 그 표현 속에 담아내는 것
- ③ 고유의 날짜를 기점으로 쓰기 시작하는 것”

3. 김석범 문학은 세계문학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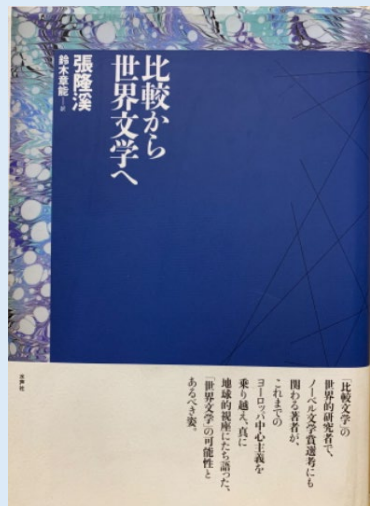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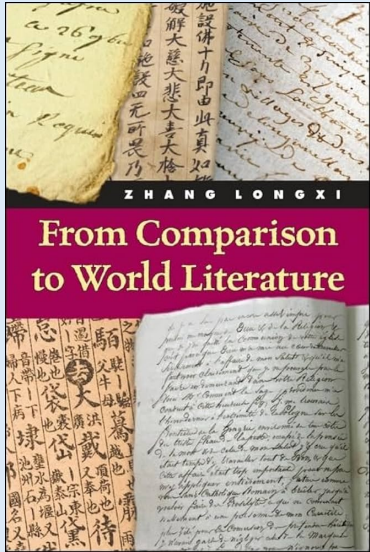


- 호소미가 지적한 바와 같이, 김석범 문학은 주로 8·15와 4·3이라는 “두 개의 날짜에 새겨진 일들을 기점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난다.
- 김석범이 8·15와 4·3이라는 날짜가 환기하는 죽은 자의 목소리와 산 자의 목소리를 되풀이하여 형상화하고 있는 것은 그것의 진정한 해방을 모색하기 위함이었다.
- 그러나 그 일들은 “결코 ‘국민의 기억’에만 회수될 수 없는 것”이라는 호소미의 지적대로, 8·15와 4·3은 한 국민국가만의 날짜가 아니다.
- 즉, 김석범이 문학을 통해 지향한 8·15와 4·3의 진정한 해방은 국민국가 단위로 완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3. 김석범 문학은 세계문학인가?

- 張隆溪(Zhang Longx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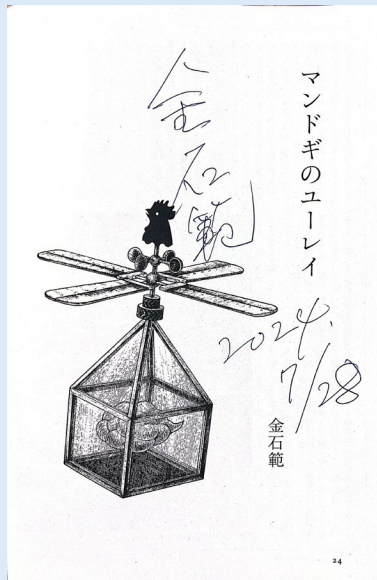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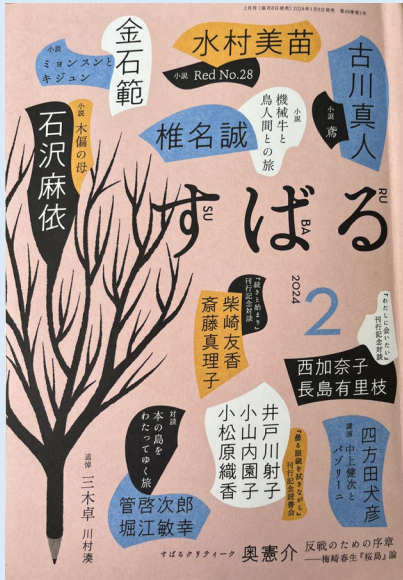
“세계문학의 개념은 늘 지역적 요구와 지역적 문맥에 맞추어 변화된다. 동시에 세계문학의 공간에 안주의 땅을 얻는 선택 받은 문학작품은 세계의 다양한 문학의 전통에서 비교적 안정된 평가를 받는 정전(cannon)으로서의 문학작품이 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세계문학은 문학연구가 문학 자체로 회귀하는 생산적인 방법론이고, 대부분의 문이론과 문화연구(cultural studies)의 담론이 전개해 온 문학으로부터의 이반(離叛)에 대항하는 방법론이다. 세계문학의 강점과 활력은 이전부터 평가가 비교적 안정적인 주요 명작에 더하여, 이제까지 관심을 두지 않았던 지역에서 새로운 작품을 끊임없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개방성과 유연성에 있는데, 그 덕분에 세계문학은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 찬 활기 있는 문학의 연구영역이 되었다. 현대의 세계문학이 해가 떠오르는 기세로 왕성해진 열쇠는 바로 이러한 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3. 김석범 문학은 세계문학인가?

- 김석범 문학에서 도출할 수 있는 세계문학으로서의 지표
- ① 세계문학이란, 이언어(異言語)의 세계를 내포하는 표현언어를 사용하여, 작품이 쓰이는 발상지를 쓰여지고 있는 순간부터 월경(越境)하는 것이다.
- ② 세계문학이란, 작품세계 내 로컬의 역사적 시공간이 지니는 고유성과 특수성이, 인간세계의 힘의 관계라는 보편성을 환기하면서 이향(異鄉)의 역사적 시공간에 울림을 주는 것이다.
- ③ 세계문학이란, 역사·사회·정치·예술·자유·생사·우애·배신 등을 둘러싸고 개인의 의식과 무의식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고자 시도하며, 독자를 사유의 끝까지 유도하는 힘을 지니는 것이다.

4. 김석범 문학 연구의 과제



- 김석범은 라이프워크로 일컬어지는 『화산도』 간행 이후 『바다 밑에서, 땅 밑에서』(2000), 『만월』(2001), 『허일』(2002), 『땅밑의 태양』(2006), 『죽은 자는 지상으로』(2010), 『과거로부터의 행진』(2012), 『바다 밑에서』(2020), 『보름달 아래 붉은 바다』(2022)와 같은 작품의 발표를 이어오고 있다.
- 또, 최근에는 「명순과 기준」(2024.2), 「만덕이 유령」(2024.8)과 같은 단편을 발표하여 많은 독자에게 놀라움을 안겼는데, 또 새로운 단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 올해로 상수(上壽)를 맞이하는 작가는 거동이 많이 불편해졌지만, 신념을 관철해온 자세와 창작에 대한 집념, 무엇보다 말살 당한 기억을 해방시키고자 하는, 처절한 울부짖음이라 할 수 있는 4·3에 대한 반복적 재현은 현재진행형이다.

4. 김석범 문학 연구의 과제

(1) 김석범의 삶과 문학세계를 총체적으로 담아내는 연구

⇒ 장기 과제 : 평론 집필

(2) 김석범의 문학적 영위와 인적 네트워크를 면밀하게 탐구하여 한일의 근현대사, 한일 지식인과 재일 지식인 간 연대의 역사를 되짚는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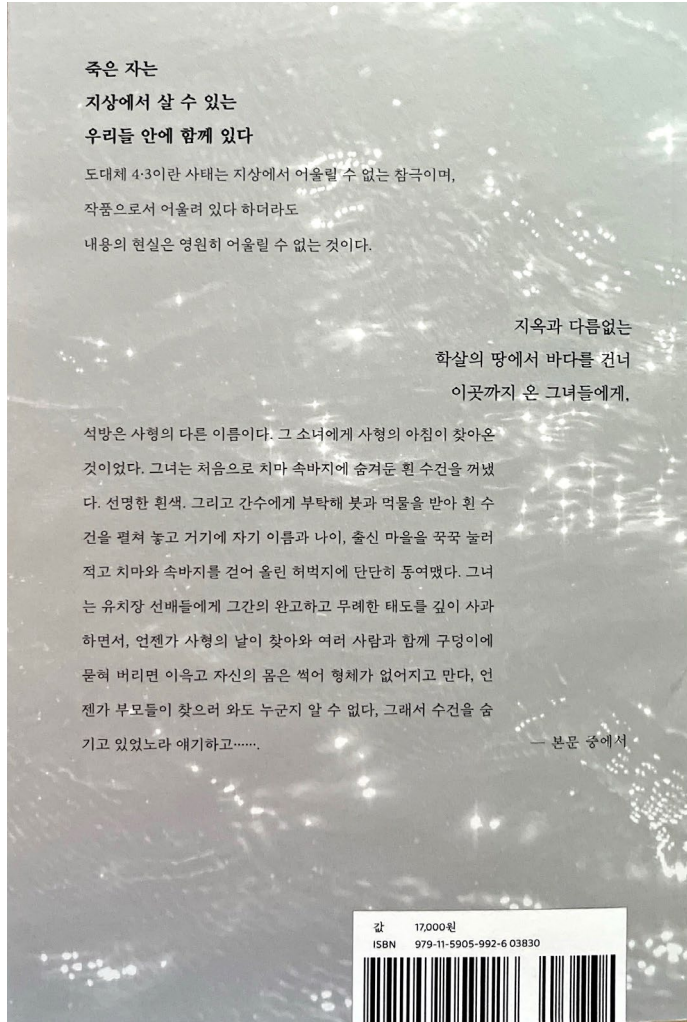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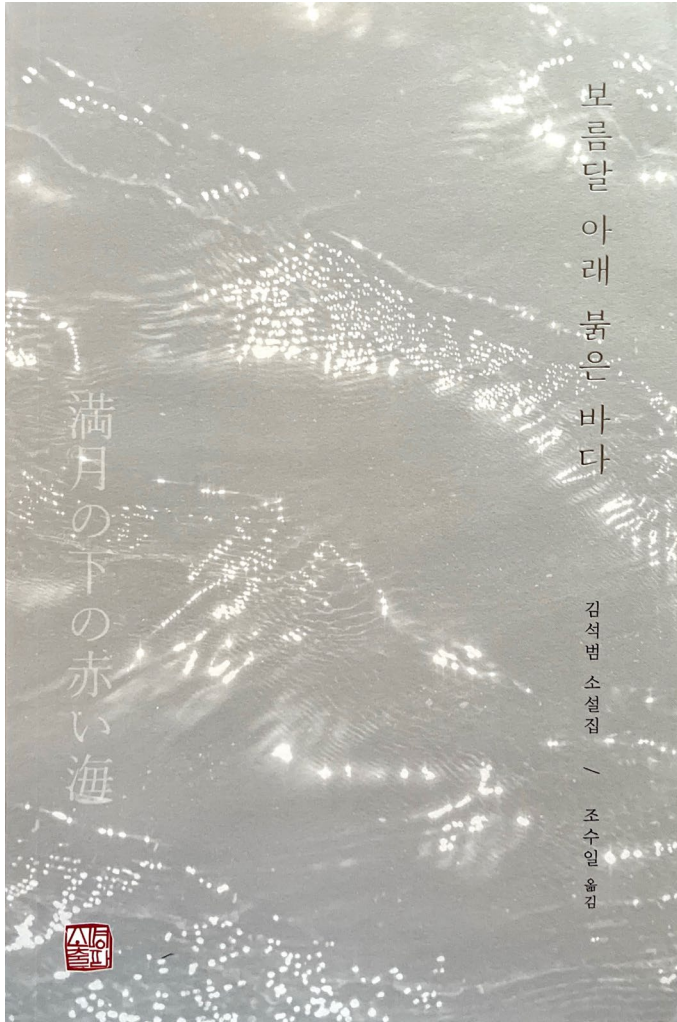
⇒ 반일·혐한 시대에 돌아보는 한일 지식인 교류의 역사(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

⇒ 전후 일본의 '1970년'과 대항공론장으로서의 계간문예지(신진연구자지원사업)

(3) 김석범의 저작에 대한 번역

⇒ 『만덕유령기담』(보고사, 2022) 『보름달 아래 붉은 바다』(소명출판, 2025)

⇒ 과제 : 김석범 방한 기행문(단행본) 번역



죽은 자는
지상에서 살 수 있는
우리들 안에 함께 있다

도대체 4:3이란 사태는 지상에서 어울릴 수 없는 첨극이며,
작품으로서 어울려 있다 하더라도
내용의 현실은 영원히 어울릴 수 없는 것이다.

지옥과 다름없는
학살의 땅에서 바다를 건너
이곳까지 온 그녀들에게.

석방은 사형의 다른 이름이다. 그 소녀에게 사형의 아침이 찾아온
것이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치마 속바지에 숨겨둔 흰 수건을 꺼냈
다. 선명한 흰색. 그리고 간수에게 부탁해 붓과 먹물을 받아 흰 수
건을 펼쳐 놓고 거기에 자기 이름과 나이, 출신 마을을 꺾꺾 눌러
적고 치마와 속바지를 걸어 올린 허벅지에 단단히 동여맸다. 그녀
는 유치장 선배들에게 그간의 완고하고 무례한 태도를 깊이 사과
하면서, 언젠가 사형의 날이 찾아와 여러 사람과 함께 구덩이에
몰려 버리면 이윽고 자신의 몸은 썩어 형체가 없어지고 만다. 언
젠가 부모들이 찾으러 와도 누군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수건을 숨
기고 있었노라 얘기하고…….

— 본문 중에서

값 17,000원
ISBN 979-11-5905-992-6 03830



김석범曰

“이 책이 나의 마지막 책이
될 것인데, 내가 죽으면 이
책이 가장 많이 팔릴 것이오.”

(김승복, 『결국 다 좋아서 하는 거잖
아요 : 이곳은 도쿄의 유일한 한국어
책방』, 달, 2025, 174면)

감사합니다!